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7.(화) 11:00 / 3. 18.(수) 조간 배포 2026. 3. 17.(화) 09:00

영농기 가뭄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원 개발 추진

- 작년 여름 가뭄이 심했던 강원 영동지역을 포함한 농업용수 상시 부족 지역 78개소에 관정·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비 80억원 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 능력이 부족한 가뭄취약지역에 지하수 관정 개발, 양수시설 설치, 저수지 준설 등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도록 80억 원(지방비 포함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3월 16일 기준 81.3%로 평년 77.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1.1~3.16)이 52.0mm로 평년 90.8mm의 57.3% 밖에 되지 않아 3월 이후 영농철을 앞두고 강수량이 적을 경우 강수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은 생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시·도, 39개 시·군, 78개 지역에 관정 78공, 양수장 6개소, 취입보 5개소, 저류지 3개소, 저수조 7개소를 설치하고 저수지 7개소 준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작년 여름 가뭄이 극심했던 강원 영동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논 419ha와 밭 592ha 등 총 1,011ha(축구장 1,416개 규모)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 장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와 용수로에 직접 급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사무관	심영건 (044-201-1863)